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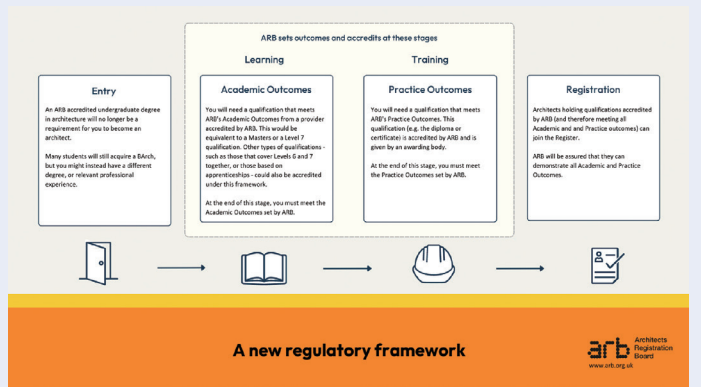
# 영국 건축사등록협회, 건축 교육·훈련 제도 개편 계획 발표

<https://architect.com/news/article/150338546/uk-plans-fundamental-overhaul-of-architectural-education-and-training>  
<https://arb.org.uk/arb-launches-tomorrows-architects/>

영국 건축사등록협회(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ARB)는 지난 2월 8일 건축 교육 및 훈련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ARB의 Part1(건축학사 과정 3년), Part2(건축석사 과정 2년), Part3(건축실무 과정 2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데는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ARB는 50년 동안 변경하지 않은 건축 교육 및 훈련 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기후위기 등 미래의 도전을 수용하고, 유연성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5%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데 찬성하였으며, 80%는 현재 ‘자격’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역량’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예비 건축가가 배운 내용이 아닌 실제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 Part1~3 대신 Academic Outcomes, Practice Outcomes의 자격을 갖추도록 개편하며, 5개 주제로 분류된 건축 훈련의 핵심 역량인 ‘전문성 및 윤리’, ‘디자인’, ‘연구와 평가’, ‘맥락과 건축지식’, ‘관리, 실천과 리더십’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편 ARB는 건축 교육 및 훈련 제도의 원활한 개편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건축가, 교육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승인된다면 2027년 9월부터 영국에서 건축가가 되려는 사람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영국 건축 훈련 및 교육 제도 개편 계획 개요

출처: 영국 건축사등록협회 홈페이지(<https://arb.org.uk/tomorrows-architects/>, 검색일: 2023.3.7)